

이 느낌이 무엇인고?

(단순 부분 발작)

18세의 여고생인 Y양이 1년 전부터 발생한 ‘가끔 정신이 혼미한 증세’를 호소하며 찾아왔다. 그것 말고도 그녀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들은 가슴이 뛰고 답답하고 식욕이 없으며 자꾸만 우울해진다는 것이었다. 가끔은 사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공허한 느낌이 있었으며 때로는 심한 불안증이 생기기도 하였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곁들여 가끔씩 “지금 있는 곳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럴 때면 이상해 보이는지 친구들이 몸을 흔들거나 “괜찮으냐?”를 자주 묻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의 이 증상, 즉 이인증(離人症)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눈치였다. 다만 그것을 자주 본 친구 하나가 “어머, 재 또 저런다. 재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슴에 맺혀 있을 뿐이었다.

뇌파를 찍었다. 약간의 서파(徐派)가 출현하였으나 크게 의의를 들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약간의 항 우울제가 처방되었으며, 이인증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이 좀 더 잘 살펴볼 것을 권유하였다.

몇 번을 다니는 동안 우울했던 기분은 많은 호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인증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그 증상에 관심을 둔 그녀는 후에 아주 자세히 그것도 전구 증상(前驅症狀)까지를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간질의 일종인 단순 부분 발작의 증상이었던 것이다.

발작을 하기 전 그녀는 먼저 무언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옛날에 내가 무엇인가를 보았거나, 무슨 일인가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하는 아주 막연한 회상(回想)의 느낌이었다. 그 다음에는 늘 느끼는 느낌, 즉 잘 알고 있는 주변 환경이 이상한 형태로 느껴지고 때로는 아주 생소한 느낌을 주는 상태가 오는 것이었다.

단순 부분 발작의 의심을 하기에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게다가 그녀는 병원의 로비에 앉아서 자신의 진료 순서를 기다리다가 그 발작을 한 번 보여 주었다.

한참 의자에 앉아 있던 그녀는 물을 마시려고 했던지 정수기가 놓여 있는 쪽으로 몸을 움직여 걸어가더니 갑작스레 간호사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쭉 돌렸다는 것이다.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 그녀를 응시했던 간호사가 그 일을 얘기 해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않은 채 약 십 여 초를 그렇게 서 있더니 하던 일을 계속 했다. 그 표정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섬뜩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 표정을 학교 친구 중의 한 사람이 “재수 없다”고 표현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식을 잃는 법은 없었다.

약간 허공을 응시하고 이상한 자세로 목이 돌아가긴 했으나 그때에도 의식은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또 이것은 시간상으로 길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어라고 하여도 곧바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그녀가 간질을 앓는 중이라고는 상상하지 못 하였다.

그 후 항 경련제를 투여 받은 그녀는 증상이 소실되고 기분도 몹시 밝아져서 학교생활을 잘 마치고 대학에 무난히 진학하였다.

그러나 대학 생활을 시작한 후에 그녀는 가끔씩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은 서클 선배들이 권하는 술을 뿌리치지 못 하고 많이 마셨을 때, 캠핑을 따라가서 남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약을 먹지 못 했을 때, 그리고 밤을 새고 놀았던 이튿날 등에 나타났다.

간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투약 중인 환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정해진 시각에 꼭 약을 먹을 것.

둘째, 고스톱이나 포커 게임을 하지 말 것. 노름을 하면 밤을 새는 일이 꼭 생기고 그 수면 박탈은 간질을 일으킨다.

셋째, 술이나 커피를 삼갈 것. 술은 께 때 뇌를 불안정하게 하고, 커피는 치료약과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